

(으)로

수단, 방향, 재료, 자격

여러 가지 의미를 하나로 담당하는 조사입니다. 형태는 일반적인 받침 규칙을 따르지만, 누구나 틀리기 쉬운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ㄹ 받침으로 끝나는 명사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명사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로	버스로 가요
받침으로 끝남	으로	젓가락으로 먹어요
ㄹ 받침으로 끝남	로 — 으로가 아님	지하철로 가요
재료	—	나무로 만들었어요
역할, 자격	—	선생님으로 일해요
선택	—	커피로 할게요

■ 언제 쓰나요

모든 용법을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을 통해서 하는가(수단)입니다. 도구: 젓가락으로 먹어요. 교통수단: 버스로 가요. 언어: 한국어로 말해요. 재료: 나무로 만들었어요.

또한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는데, 이 점에서 예와(과) 겹칩니다. 예는 도착점, (으)로는 향해 가는 방향을 나타냅니다. 가다와 함께 쓰면 둘 다 가능하고 차이도 크지 않지만, 표지판이나 길 안내에서는 (으)로를 씁니다: 오른쪽으로 가세요.

일찍 알아 두면 좋은 용법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. 선택: 저는 커피로 할게요 (커피를 고른다), 그리고 자격: 선생님으로 일해요 (교사라는 자격으로 일한다).

■ 예문

- 1 지하철로 삼십 분 걸려요.
- 2 한국어로 말해 주세요.
- 3 이쪽으로 오세요.
- 4 나무로 만든 의자예요.
- 5 감기로 학교를 쉬었어요.
- 6 볼펜으로 쓰지 마세요.

■ 비교

예
예는 목적지를 고정된 도착점으로 나타내고, (으)로는 이동 방향을 나타냅니다. 단순히 '학교에 간다'라고 할 때는 예를, 방향을 틀거나 향하거나 가리킬 때는 (으)로를 씁니다.
학교에 가요. (목적지: 학교) / 오른쪽으로 가세요. (방향: 오른쪽)

와/과, 하고
'~와 함께'와 '~을 사용해서'는 구별해야 합니다. 함께한 사람에는 하고를, 사용한 도구에는 (으)로를 씁니다.
친구하고 만들었어요. (친구와 함께) / 손으로 만들었어요. (손을 사용해서)

에서
에서는 행동이 일어나는 장소를, (으)로는 도구나 경로를 나타냅니다. 교통수단은 이동 수단일 때 (으)로를,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예서를 씁니다.
버스로 왔어요. (버스를 타고 왔다) / 버스에서 잤어요. (버스 안에서 잤다)

■ 주의

- ✗ 지하철로 잤어요.
○ 지하철로 갔어요.
ㄹ 받침으로 끝나는 명사는 일반적인 받침 규칙과 달리 짧은 로를 씁니다. 서울로, 연필로, 솔로도 마찬가지입니다.
- ✗ 버스에 왔어요.
○ 버스로 왔어요.
이동 수단으로 쓴 교통수단에는 (으)로를 씁니다. 예를 쓰면 버스가 목적지가 되어 의도와 다른 뜻이 됩니다.
- ✗ 손에 먹지 마세요.
○ 손으로 먹지 마세요.
도구로 쓴 신체 부위에는 (으)로를 씁니다. 손에는 '손 안에'라는 장소의 의미가 됩니다.